

아이젠도

국가 중요문화재인 아이젠도는 1635년에 다이쇼인 절이라는 절의 일부로 세워진 다케타시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이후 1874년에 오카 성 내 신앙의 중심이었던 간조인 절의 본당이 되었습니다. 오카 성이 폐성된 후, 간조인 절은 아이젠도가 있는 언덕 위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사각형으로 된 건물은 에도시대(1603-1867) 초기 사원 건축의 흥미로운 예시 중 하나입니다. 밖으로 내달은 4 각뿔 모양의 지붕이 특징이며, 복잡하게 조합된 완목이 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지붕의 네 모퉁이에는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며, 그 테두리는 사귀(邪鬼)라고 불리는 작은 귀신같은 생물이 그려진 조각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본존의 애염 명왕은 연애, 결혼, 화목한 가정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지고 있어 아이젠도는 인연을 맺어주는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이젠도의 내벽에는 죽은 자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천녀’를 비롯한 천상계의 인물을 그린 벽화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17 세기에 그려진 벽화는 섬세하여 손상되기 쉽기에 1 년에 2 번, 봄과 가을에만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